

# SBS 사우회보

www.sbssau.co.kr

SBS 사우 3대 덕목

서로 이해하는 마음  
서로 존경하는 마음  
서로 배려하는 마음

2016년 1월 1일 제37호

발행처 사단법인 SBS사우회 발행인 김수용 편집인 박동주 주소 0733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67길 22, 605호(태양빌딩) TEL 02)783-0590~1 FAX 02)785-9805



## 이근용의 **히든스토리** 코로 먹은 과자

조장기 SBS 드라마 스테프들은 양평동에서 군대(?) 생활을 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신화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요즘으로 말하면 창조경제의 선구자라고 할까? 당시 양평동은 철공소와 과자공장에서 풍기는 과자 타는 냄새와 섯가루가 날아다니는 공장지대였다. 이곳의 대형 창고를 드라마 스튜디오로 개조해 SBS 드라마의 문을 연 것이다. 주차장이 없어 외부에 세워놓은 배우들의 자동차는 골짜기가 일쑤였고 소품창고가 없어 마당에서 대도구 세트와 소품도 정리해야 했다. 비가 오면 몽고텐트를 덮어 씌어둔 미술소도구, 대도구들을 정리해야 하는 스테프들은 매일 피눈물을 흘렸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양평동 스튜디오의 환경은 정말로 '쟁이들의 전투정신'이 없었으면 감당하기 힘든 현장이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처음으로 아침드라마 '고독의 문'의 녹화가 시작되었다. "고독의 문"은 스테프들의 말 그대로 '고독의 문'이었다. 새벽 2시에 촬영이 끝나면 절거하는데 꼬박 밤을 새고 그 다음날 오후에 작업이 완료되었다. 녹화하다가 정전이 되면 녹화도 중지되고 쉬었다 해야 했고 비행기가 지나가도 녹화를 중단시켜야 했던 상황들... 무엇이 이 모든 사람들에게 힘을 내게 했을까? 오늘날 SBS의 환경과 그 시절은 그야말로 천당과 지옥에 비유할 정도라는 생각이 든다. 어쨌든 그때를 생각하면 옛 전우(?)들의 노고와 공로를 다시 한번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힘들었던 환경 속에서도 가능하면 녹화진행을 잘하려는 의도로 웃어가며 재미있게 분위기를 끌어가고 하다 보니 나의 별명은 이미 '이구라'가 되어있었다. 우리 동료인 윤균일 PD도 나한테 물들어 "윤

구라'라는 별명을 동시에 듣게 되었고 일간스포츠에 "양태 구라"에 대한 기사가 나기도 했다. 한참 인기를 끌었던 김구라의 배경에는 이구라와 윤구라의 역할이 독특히 있었던 것만은 사실 인 것 같다. 이렇게 "고독의 문"이 "고통의 문"으로 시작되었지만 이 프로그램은 SBS 방송 역사상 첫 아침드라마로 편성되었고 결혼의 위기를 느끼는 30대 주부들의 생활과 갈등을 그려 초기 SBS 방송에서 최고의 시청률로 안착시키는, 공로가 컸던 작품이었다. 대표 연기자는 원미경, 유동근, 남성훈, 김정 등이 출연했다. 나는 SBS전에 KBS에서는 전설의 고향, 포도대장, 형사기동대, TV문학관 등을 연출했는데 본격적으로 아침 멜로드라마를 하기는 처음이었다. SBS 개국 첫 방송 첫 드라마였던 고독의 문에 대한 의미를 강조하다보니 이 작품 속에 출연하였던 원미경 연기자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고 갈 수가 없다. 그녀는 너무나 역올한 상황을 연기하기 하기 위해 4시간 동안 잠적해 아무도 없는 한적한 촬영현장 구석에서 돌아간 아버지를 생각하며 3시간 이상 울었다고 한다. 이 얘기의 결론은 연기에 임하기 위해 2~3시간 이상을 통곡하며 울다가 카메라 앞에서는 열정을 가진 그녀처럼 초창기 SBS 드라마 스테프들의 열정은 뜨거운 용광로였다. 섯가루 먼지를 마시고 매캐한 화학반응의 과자냄새를 맡으며 드라마를 제작하면서 얼굴 한번 정그리지 않았던 스테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인사를 드린다. 그때 양평동의 매캐한 과자냄새가 이따금 코끝에 구수한 향기로 다가올 때가 있다. 추억은 그래서 그리운가 보다.

## 사 | 우 | 회 | 정

- 신영균(영예고문)** 지난해 12월 7일 SBS 사우회 송년회에 참석해 사우회 발전기금으로 금일봉을 기탁했다.
- 강인식(제작)** 지난 달 4일 단행된 KT 정기 인사에서 미디어 콘텐츠 담당 상무로 승진 했다.
- 원충호(기술)** 고용노동부로부터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로 위촉돼 지난해 11월부터 중소기업 대상으로 양 및 문화나눔 부문 선정등서로 선정 됐다.
- 윤충의(기술)** 지난해 11월 13일 고양 아람 누리 갤러리 누리에서 미술전시회를 가졌다. 출판작 수채화 '한 나절'은 관람객들로 부터 호평을 받았다. 지원회는 단체다.
- 신선미(편성)** 지난해 12월 베트남 호치민에서 열린 제9회 아시아컵 배테랑 탁구대회 한국대표 선수로 출전했다.
- 허원제(보도)** 최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사의를 표명하고 총선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달 갑자기 하늘로 가신 김선배 빈소에서 사우들이 뒤늦은 후회를 했다. 불편한 다리도 동호회 모임에 나오셨을 때 부축을 해드리고 챙겨야 했는데... "집에 계시지 왜 나오셔서 민폐를 끼치는지 모르겠네"라며 핀잔 한 것이 두고 두고 마음이 아팠기 때문이다. 동료에 대한 배려가 배제 됐으니...



丙申年 SBS사우회 사우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SBS사우회보 편집 위원 일동 -



▲ 사우회 나무(?) 2016년 SBS 사우회 창립10주년의 해가 밝았다. 한 해 한 해 키재기 하듯 지라 10살 소년이면 SBS 사우회 나무. - 수묵화 동호회 작품 -

## SBS 사우회 '해를 품다'

2016년 丙申年 새해, SBS 사우회도 힘찬 비상을 시작했다. 사우회 창립 1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이기도 한 번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시작점의 날개를 활짝 펼 것이다. 김수용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사우회는 창립 10주년을 전후점으로 새로운 변화를 준비해야 할 시기라며 사우들의 지혜를 모아 재도약의 기틀을 다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사우회는 오는 9월5일 창립 10주년 행사를 품격 있게 치루기 위해 TF팀을 구성하는 등 이에 걸 맞는 업무 추진으로 바쁜 한해가 될 것으로 전망 된다. 사우회가 지난해 12월 18일 예년 보다 빨리 정기이사회를 열고 현 집행부를 재선임 하기위해 김수용회장을 추대한 것은 일의 연속성과 추진력을 위해 취한 조치다. 2006년 100여명으로 출발한 사우회는 10년 사이 5배가 넘는 530여명의 사원으로 늘어났고 예산규모도 커졌다. 향후 2~3년 후 퇴직자들이 크게 늘어나는 것을 대비해 안정적 재정확보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사우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방안도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해 사우회 8개 동호회 활동에 참여한 사우 수는 연 인원 700여명에 이른다. 사우회는 이를 반영해 사우들의 취미 생활의 다양성을 위한 사진, 자전거, 독서 토론회 등 새로운 동호회 구성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사우회는 지난해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재능기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사우들에게 큰 관심사였기에 올해도 자우회기제 진로체험 확대 등 사우들의 재능 재이용 기회를 넓혀 나가기로 했다. 또한 사우들의 연중행사 참여율이 높은 आय회를 봄가을로 나누어 두 차례 가질 예정이다. 지난해 시범 실시한 가을 आय회는 사우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 사우회 현 집행부 재선임 한다

2월 정기총회서 결의  
SBS 사우회는 지난해 12월 18일 정기이사회를 열어 사우회 2기 시대를 연 현 집행부 김수용 회장을 재선임하기로 동의 하고 2월 2일 열리는 정기총회서 추인할 예정이다. 사우회가 통상 1월 말에 열리는 정기이사회를 앞당긴 것은 사우회 창립 10

- 주년 행사 준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다. 총회서 추인을 받게 되면 김수용 회장을 비롯해 박건삼, 장동욱, 현일범, 김벽수, 손석기 5명의 부회장단과 김세웅, 이해련 이사 등은 2017년까지 사우회를 이끌게 된다.
- 2016년 사우회 창립 10주년의해, 강산이 한 번 변한 만큼의 연륜이 묻어나는데 정작 사우들은 연륜이 쌓이는 게 왜 싫을까?
- SBS 사우회 슬로건은 '함께 만든 10년의 기쁨' 표절이라고 시비 걸지 말고 무력무력 지라라고 거품이나 뿌려주세요.

## 〈新年辭〉 날아라 슈퍼보드

김수용 회장  
구름을 타고 하늘을 날아 다니고 여의봉 마법으로 산과 산을 뛰어 넘으며 온갖 도술을 부리는 영물, 중국 고전 소설 서유기, 손오공 이야기입니다. 큰 바위 돌을 뚫고 태어난 손오공, 출생의 비밀이 풀린지라 우스개로 돌머리가 아닐까 싶지만 재주 많고, 영리하고, 지혜로운 원숭이입니다. 예부터 원숭이가 이런 동물이었기에 서유기 속의 주연으로 캐스팅 되었고 TV 앞에서는 슈퍼보드를 타고 날아다니며 아이들에게 꿈을 심는 친구가 되었나봅니다. 그리고 2016년 봄은 원숭이 해, 우리와만 닮았습니다. 올 한해 SBS 사우회 사우 여러분도 원숭이의 민첩함과 지혜로움을 받아 민사행통 하시길 희망합니다. 특히 올해는 사우회 창립 1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강산이 한 번 변한 세월에 걸맞게 사우회의 새로운 변화의 비상을 일으켜 보겠습니다. 10주년을 전후점으로 삼아 사우회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발판을 놓겠습니다. 사우여러분들의 지혜를 모아 앞으로 또 한번의 10년을 준비하겠습니다. 올해도 동호회 활동 열심히 참여해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지난해처럼 사우들의 방송관련 일자리를 찾아 재능기부 기회를 늘여나가겠습니다. 2016년 10살 소년의 원대한 꿈을 위해 SBS 사우회 우리 모두 함께 슈퍼보드에 건강을 싣고, 희망을 싣고 보다 멀리 보다 높이 날아봅시다.

## SBS 새로운 슬로건



SBS가 창사 25주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슬로건 '함께 만드는 기쁨 SBS'를 공개했다. 종전의 '내일을 봅니다.SBS'를 대체하는 새 슬로건은 건강한 방송으로 세상을 밝게 만들고 기존의 기쁨 주고 사랑받는 SBS의 철학을 더욱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다. 또 빠르게 변하는 미디어 환경을 로건 '함께 만드는 기쁨 SBS'를 공개했다. 종전의 '내일을 봅니다.SBS'를 대체하는 새 슬로건은 건강한 방송으로 세상을 밝게 만들고 기존의 기쁨 주고 사랑받는 SBS의 철학을 더욱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다.

## SBS 사장 김진원 취임

김진원 사장  
SBS 창사 이래 처음으로 공동대표 제도를 도입해 SBS 홀딩스 김진원 대표를 사장으로 박정훈 제작본부장이 부사장으로 각각 취임했다. 김진원 사장이 SBS 대표로서 보도와 기획 경영을 총괄 하고 박정훈 부사장은 프로그램 제작을 총괄하게 된다.

## SBS 社友漫評



“2016년, 함께 날아 옴시다” SBS 사우회

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재미와 감동**

SBS 미디어넷이 드리는 행복한 약속은 2016년에도 계속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SBS Medianet 서울 영등포구 상림로 82 SBS 3기동 440호

